

## 『滿文原檔』에서 『滿文老檔』으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연구\*

김 주 원\*\* · 이 형 미\*\*\*

### [초 록]

이 글에서는 청나라 초기의 역사 기록에 대해서 그 변경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자료인 만문원당과 그것을 바탕으로 증정한 만문노당을 대상으로 개수의 흔적을 관찰하여 그 변경의 과정을 살피고 각 기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개수가 만문원당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흔적이 만문원당 기록에 남아 있으며, 이 개수의 결과는 대부분 만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원 집담회>의 성과물 중 하나임.  
이 논문의 일부는 SIAC 2017 (2017.7.14., 울란바토르)에서 “From *Manwen Yuandang* to *Manwen Laoda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ouble articl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만문원당, 만문노당, 무권점자, 滿文原檔, 舊滿洲檔, 滿文老檔  
*Manwen Yuandang, Manwen Laodang, Manchu Historical Records, Manchu Script without Circle and Dot*

문노당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가끔 만문원당에는 같은 내용의 기록이 두 번 나타나는 이른바 중복 기사가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복 기사를 특히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중복 기사의 경우에는 한쪽 기사에 개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다른 쪽 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원당에서 노당으로의 내용 변개가 두 번 이상의 개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개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일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노당

[중복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원당 - 변개 → 만문노당

이와 별개로 단일 기사이든 중복 기사이든 상관없이 만문노당에 기록할 때 변개한 것도 있는데, 최종 원고를 증초하되 수정 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한 변개가 간혹 보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드물게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독특한 경우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列字檔과 冬字檔의 중복 기사 및 증초 작업에 대한 지시문을 살펴보면, 列字檔이 처음 쓰인 것이고 冬字檔이 그것을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문노당의 기사는 冬字檔이 아닌 列字檔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위에서 보인 중복 기사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변개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중복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원당

↳ 만문노당

이 연구는 기초적 연구에 불과하며 청나라 초기의 역사 기록들 사이에 이루어진 개수의 과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정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기

### 1.1. 당안의 명칭과 그 관계

칭나라 초기의 역사 기록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기록물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절한 명칭을 붙였으나,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붙인 명칭이므로, 결국에는 혼란스럽게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는 이 사료의 명칭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閻崇年(1998:23)의 명칭을 채택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無圈點老檔
- (2) 無圈點字檔 (底本)
- (3) 無圈點字檔 (內閣本)
- (4) 無圈點字檔 (崇謨閣本)
- (5) 有圈點字檔<sup>1)</sup> (底本)
- (6) 有圈點字檔 (內閣本)
- (7) 有圈點字檔 (崇謨閣本)
- (8) 有圈點字檔 (上書房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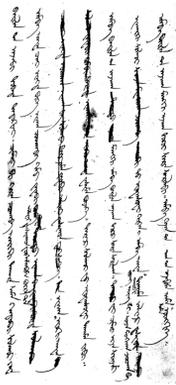
여기에서 보듯이 이 책은 무권점자로 된 것과 유권점자로 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無圈點老檔(1)과 그것을 베낀 저본(2)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해서체로 베낀 것이 (3)과 (4)이며, 무권점자로 된 것을 유권점자로 고친 저본(5)이 있고 그것을 해서체로 베낀 것이 (6)과 (7)이다. (8)은 기록에는 있으나 현물은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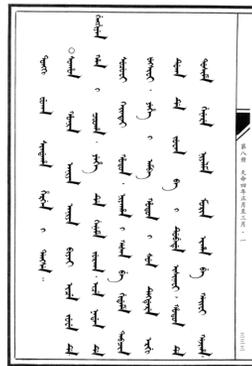
1) 閻崇年(1998)에서는 加圈點字檔이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有圈點字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만주어로 “tongki fuka sindaha hergen”이므로 加圈點字라고 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 연대순으로 보면 (1)은 원 사료이며 1607년에서 1636년까지의 기록물이다. (1)은 후세에 『滿文原檔』(또는 『舊滿洲檔』이라고도 부름)으로 불리는 책으로 태조조 20책, 태종조 20책, 모두 40책이다. 이 중에 37책이 1774년 이래에 중초(重抄)의 대상이 되었다.<sup>2)</sup>

1741년에 무권점자당을 후대에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오르타이(鄂爾泰), 서원몽(徐元夢) 등이 어휘집에 해당하는 『無圈點滿文字書』(Tongki fuka akū hergen i bithe)를 만들었으며, 33년 뒤인 1774년에 슈허더(舒赫德)가 다시 건의를 하여 중초 작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774년에서 1778년 사이에 (2)와 (5)를 제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서체로 (3)과 (6)을 제작하여 북경의 內閣大庫에 보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1778년과 1779년 사이에 (4)와 (7)을 각각 제작하여 盛京 즉 심양의 崇謨閣에 보관하였다.



[그림 1] 滿文原檔 (無圈點字檔)



[그림 2] 滿文老檔 (有圈點字檔)

2) 40책 중에서 37책은 1932년에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3책은 1935년에 발견되었다. 후자 3책은 1624년(天命9)과 1626년(天命11)의 기사가 1책, 1632년(天聰6)의 기사가 1책, 1635년(天聰9)의 기사가 1책이다. 이 중 천총9년 당안은 일본 동양문고 청대사연 구실에서 번역을 하여 『舊滿洲檔 天聰九年』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고(1972, 1975), 중국에서도 1987년에 『天聰九年檔』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간행하였다.

이 중에서 (1)이 두 차례 영인 출판되었으며<sup>3)</sup> (6)이 그 후에 영인 출판되었다.<sup>4)</sup>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1)과 (6)이다([그림 1], [그림 2] 참고). 이 글에서는 (1)은 최근에 출판된 영인본의 명칭을 따라서 『滿文原檔』으로 부르며(이전에는 『舊滿洲檔』으로 불렀다), (6)은 『滿文老檔』으로 부른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을 대상으로 하여 만문원당을 개수(改修)하여 만문노당으로 정본화하는 과정 즉 역사 기록의 초고에 해당하는 만문원당 내에서 개수의 양상과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1.2. 만문원당을 기록한 만주자

두 자료는 전자는 17세기 초반의 기록이며, 후자는 18세기 후반의 기록이어서 시기적으로 약 150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전자는 대체로 무권점 만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후자는 정제된 유권점 만주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내용상의 변화를 주로 다루고 문자 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만문원당을 기록한 만주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만문원당에는 1607년부터 1636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632년에 유권점자가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1632년 이전의 기록은 무권점자로 되어 있고, 1632년 이후는 유권점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의 표기를 보면, 성백인(1981)에서도 밝혔듯이 완전한 유권점자 표기는 1639년경에야 완성이 되며 그 이전은 과도기적 표기로 볼 수가 있다. 한편 1607년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607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학자들의 연

3) 『舊滿洲檔』 1-10,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와 『滿文原檔』 1-10,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6이다.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사료의 명칭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4) 『內閣藏本滿文老檔』 1-20,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9.

구에 의하면 그것은 1621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인(여진인)들이 자신들의 문자로<sup>5)</sup> 자신들의 언어를 최초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초기의 기록인 만문노당의 기록은 여러 가지 언어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백인(1981), 福田(2011 등)은 표기에서 17세기 만주어의 음운론적 정보를 파악하려 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 1.3. 전자의 원칙

이 글에서 원당의 무권점자를 전자하는 방식은, 권점이 없더라도 a/e, o/u, k/g/h, t/d 등을 구분해서 적는다는 점에서 성백인(1978) 등의 선행연구와 큰 틀은 같이지만 다소 변형된 방식을 채택하였다.<sup>6)</sup> 본고에서는 표기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이 전자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인 원당 연구를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독해에 방해가 덜 되는 선에서 실제의 자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권점 만문 전자의 원칙을 포함하여 각 당안의 내용을 이 논문에 옮겨 적는 원칙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부호 사용>

해독 못한 글자는 □로 표시한다.

만문원당의 구두점 ,와 „와 »는 각각 ,와 ,, ,,,로 입력한다.

만문원당의 예문 중간에 행이 바뀌거나 만주실록의 예문 중간에 면이 바뀔 경우에는 /03 혹은 /75b 와 같이 / 뒤에 기울인 글꼴로 표시한다.

대두는 ≪로 표시한다. 만문노당에서는 ≪(이단 대두)와 ≪(일단 대두)를 쓴다.

---

5) 물론 만주자는 창제된 것이 아니라 몽골자를 채택하여 자신의 언어에 맞게 개수한 것이다.  
 6) 반면 문자상 구분되지 않는 o/u, a/e를 전자로도 구분하지 않고 각각 O와 A로 쓰는 방식을 택한 선행 연구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gisureme를 KISORAMA로 전자하는 池上二良(1965)가 있다(성백인 1978에서 재인용).

(2) <무권점자 전자 원칙>

1. 무권점자는 점이 없더라도 a/e, o/u, k/g/h, t/d 등을 유권점자에 준하여 구분하여 전자한다.
2. 유권점자와 다른 형태로 적는 일부 자모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자형을 따라 유권점자에 준하여 전자하되 대문자로 하여 눈에 띄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형은 B, C, J, S, W, I, O, Ū 등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무권점 전자 원칙과 무권점자의 예

| 무권점자 전자          | 대응 유권점자          | 비고  |
|------------------|------------------|---|
| jiBi             | jifi             |                          |
| Boo              | poo              |                          |
| waCiha           | wajiha           |                          |
| niIalma<br>lamji | niyalma<br>yamji |                         |
| iJe<br>Jooha     | ice<br>cooha     |                        |
| akO              | akū              |                        |
| gŪruni           | guruni           |                        |
| juSen            | jušen            |                        |
| aWaki            | afaki            |  (o/u 앞의 f는 소문자 f로 전자) |

이 방식이 성백인 방식과 두드러지게 다른 두 가지는 대문자의 사용법과 모음 o, u, ū의 전자법이다. 성백인 방식의 무권점자 표기에서는 기본적으로 ㅅ는 O로, ㅆ는 U로 전자하며, ㅈ가 k, g, h의 다음에 올 때는 U가 아닌 Ū로 전자한다. 무권점자에서 실제로 자형이 구분되는 것은 ㅅ와 ㅆ 두 가지뿐인데 대부분의 경우 제1음절에서 각각 유권점자의 o와 u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를 각각 O와 U로 적는 것은 무권점자 체계에 최적화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형태의 문자를 U와 Ū로 적는 것이 k 아래에 오는 Ū가 별개의 음소임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님에도 자칫 전자형 O, U, Ū의 시각적인 대립에 이끌려 오독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 글과 같이 유권점자 자료를 나란히 다루며 비교하는 경우에는 자료들 사이에서 o, u, ū를 구분하여 적는 기준이 달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o/u는 a/e와 같이 유권점자에 준하여 구분하여 적고, 꼬리가 달린 ㅆ 자형이면 어떤 자음 뒤에서든 ū로 전자한다. 그리고 해당 문자가 유권점자 표기와 다르게 표기되었을 경우에만 대문자를 쓴다.

무권점자로 표기된 단어 전체가 아니라 무권점자만의 특수한 자형임을 고려하여 읽어야 하는 문자만을 대문자로 하여 도드라지게 한 것은, 번잡스러움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독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대문자로 적는 문자는 같은 형태의 문자를 같은 글자로 전자하는 것, 즉 기본적으로 자형과 전사가 1:1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방식은 자형 정보를 더욱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문자 복원에 더 중점을 둔 방식이다.

한편 대문자로 적는 자형을 geneBi 대신 geneFi와 같이 판독의 결과를 적고 대문자로 하는 선택지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무권점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경우 모두 문자 복원이나 해독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형을 취하는 전자의 방법은 한 음소가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내거나, 같은 단어의 표기가 여러 형태로 섞여 나타나는 경우에 실제 문자의 모습을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

다.7) 이 논문에서는 표기법에 중점을 두지는 않기에 문자형 정보가 잉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원당의 표기를 나타내는 방식이므로 더 적은 노력으로 원 자료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독해의 편의 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닐 수 있으나, 이 글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유권점자 만문노당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만문원당과 만문노당의 관계

### 2.1. 중복 기사

무권점자본 『滿文原檔』을 저본으로 하여 유권점자본 『滿文老檔』으로 개수(改修)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하에서는 개수의 양상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무권점자본 『滿文原檔』을 유권점자본으로 개수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언어학적인 고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권점자본의 개수 양상을 정밀하게 고찰하면 당시 만주어의 어휘 문법 면에서도 중요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문원당은 만문노당과는 달리 책의 구성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

7) 물론 여기에 제시한 원칙만으로 무권점자의 모든 형태적 특이사항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고안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원당의 표기는 과도기적인 제3의 자형이나 변형된 자형, 유권점자적인 요소와 무권점자적인 요소가 섞여 나타나는 등 매우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이는데, 출현하는 모든 자형의 전자법을 정해 둘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글의 주된 목적과 동떨어져 있고 공연히 복잡함만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였다.

만문원당은 위에서 본 대로 태조조 20책, 태종조 20책, 모두 하여 4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책들은 각각 천자문의 글자를 써서 제 제목으로 삼고 있다. 그 일부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陳捷先 1969 참고)<sup>8)</sup>.

- (3) [만문원당 권1] 荒字檔: 1607년~1619년, 昃字檔: 1615년~1620년
- [만문원당 권2] 張字檔: 1621년~1622년
- [만문원당 권3] 來字檔: 1621년, 辰字檔: 1622년, 列字檔: 1623년, 冬字檔: 1623년
- [만문원당 권4] 盈字檔: 1623년, 寒字檔: 1624년, 收字檔: 1625년, 黃字檔: 1626년(이하 생략)

위에서 보면 황자당과 측자당, 장자당과 내자당 등 몇몇 당들이 연대상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만문노당의 해당 기사의 저본이 된 만문원당 기사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둘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만문원당에 중복되는 기사가 있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중복 기사’라고 부르기로 한다.<sup>9)</sup> 이 글에서는 특히 만문원당의 중복 기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두현(2010:50)에 의하면 만문원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그 목록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8) 아래의 연대는 기사의 연대이지 필사한 연대는 아니다. 필사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체로 1621년 이후에 몰아서 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9) 김두현(2010)에서는 ‘중복당’이라고 불렀다.

10) 김두현(2010)에서는 『구만주당』(1969년)의 쪽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의 페이지 표시와는 다르다.

[표 2] 만문노당과 만문원당의 대응

| 만문노당(권8, 1619년 1월) | 만문원당               |
|--------------------|--------------------|
| 118의 11-13         | 267(荒字檔)의 3-4      |
|                    | 393(昃字檔)의 3-4      |
| 118의 14-15         | 267의 4-5           |
|                    | 393의 4-5           |
| 119의 1-5           | 267의 6, 269의 1-3   |
|                    | 393의 5-7, 394의 1   |
| 119의 6-15          | 269의 3-6, 271의 1-4 |
|                    | 394의 1-7           |

이러한 중복 기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권(또는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태조조 즉 1607년부터 1626년까지의 부분 중에서 중복 기사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의 대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김두현 2010 참고).

- (4) 1615년 1월 - 1619년 3월
- 1621년 7월 - 1621년 11월
- 1623년 1월 - 1623년 2월
- 1623년 5월 - 1623년 6월

위에서 보인 연대의 기록은 최소한 두 번 기록이 된 것은 분명해진다. 이런 경우에 (1) 만문원당이 전반적으로 두 번 작성이 되었는지의 여부, (2) 그럴 경우 현재 중복 기사가 남아 있는 경우는 초본(草本)을 모두 없애려 했지만 부주의로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 (3) (1)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특정 시기에 대해서만 초본을 수정하여 교정본(校正本)을 만들었는지의 여부, (4) 한편 중복 기사가 아닌 경우 즉 단 하나의 기사만 있는 경우 그것의 내용이 바로 만문노당의 내용과 같은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며 전체를 다 대조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므로, 연구를 할 때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만문원당의 중복 기사는 일찍부터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廣祿·李學智(1965)는 구만주당 즉 만문원당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중복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松村潤(2001)과 김두현(2010)은 태조조의 중복기사 목록을 작성하였고, 최근에는 早田輝洋(2014)이 특정 표기를 통하여 중복 기사 상호간의 작성 연대를 추론하려는 연구를 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 초기 역사에 대한 여러 기록들의 변개 양상을 살핌으로써 이들 기록물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러 기록이란 원자료인 『만문원당』, 그것을 바탕으로 중초한 『만문노당』을 의미한다. 변개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단일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노당

[중복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원당 - 변개 → 만문노당

그러나 드물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참고).

[중복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원당

↳ 만문노당

그리고 단일 기사이든 중복 기사이든 상관없이 만문노당에 기록할 때 변개한 것도 있다.<sup>11)</sup> 즉 최종 원고를 중초하되 거기에 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한 변개도 간혹 보인다.

이들 역사 기록과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3 언어(만주어-한어-몽골어)로 쓰인 『만주실록』(1781)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언급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기 전에 각 당안에서 내용을 수정한 방법 즉 표식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5) 변경 표식

#### 1) 삭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붓으로 글자 위에 먹으로 줄을 그어 놓았다. 이 논문에서는 **wala**처럼 표시하였다. 한편 많은 내용을 삭제할 때에는 페이지의 일부나 전체를 붓으로 둘러싼 모양으로 표시를 하였다.

#### 2) 대체

원래의 글자에 줄을 긋고 그 왼쪽에 대체할 글자를 썼다. 이 논문에서는 **hoton** [hecen]처럼 표시하였다.

#### 3) 삽입

a. 삽입하여야 할 부분에 ‘+’ 표시를 하고 왼쪽 편에 삽입할 문구를 적었다. 이 논문에서는 [+muhalilan i gebungge amban de]처럼 표시하였다.

b. ‘+’ 표시 없이 삽입할 문구를 적었다. 때로는 기존의 행간에 한 줄 이상의 긴 내용을 끼워 넣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isinjiBi alame]처럼 표시하였다.

takOra[+bu]re (扃字檔 [1:139:07])나 hebede[me](荒字檔 [1:75좌:06])와 같이 삽입할 한 음절만을 글자 옆에 표시한 경우도 있다.

c. 짧은 단어의 경우에는 왼편이 아닌 기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간에 끼워 넣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단

---

11) 扃字檔(1:140:04)에 sŪre ha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문노당(5권 1쪽)에서는 sure kundulen han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어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 뒀다가 나중에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다. 반면 속격의 ‘i’ 등 매우 짧은 것은 나중에 삽입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 4) 종이를 붙여 기존의 문구를 가리거나 그 위에 새로 적기도 했다.
- 5) ‘+’를 하나 이상 쓴 경우가 있는데, 삽입에 사용한 ‘+’ 하나짜리 기호와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삭제나 수정 지시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있다. 측자당에 이 표시가 붙어 있는 단어가 노당에 빠져 있거나, 이 표시가 붙은 곳에 종이를 붙여 원래의 문구를 가린 곳도 있다.
- 6) 글자 수정: 이를테면 IaWaha (yafaha)라고 썼다가 마지막 a의 꼬리를 지우고 이빨(argan)과 꼬리(uncehen)를 이어 써서 IaWahan 이라고 고치거나,<sup>12)</sup> coohai라고 썼다가 i를 지우고 a의 꼬리를 뺀 것의 수정 흔적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뺀 것 수정한 흔적 중 어떤 것은 확실히 필사하는 도중에 고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백인(1982)에서 획이나 점을 후대에 추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듯이 필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도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 2.2. 수정의 양상

이 절에서는 간단한 문장을 예로 들면서 당시의 역사기록자들이 수정해 나간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단일 기사와 중복 기사로 나누어서 기술하기로 한다.

---

12) 오른쪽의 그림은 여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IaWaha에서 IaWahan으로 수정한 예이다. 만문 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이듯이 왼쪽으로 뾰족하게 한 번 굽고 돌아오는 획을 이빨(argan),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길게 뻗 마지막 획을 꼬리(uncehen)라고 한다.



### 2.2.1. 단일 기사의 예

먼저 측자당에 있는 단일 기사의 예를 보인다.

(6) (a) 昃字檔 [1:225:04~05]<sup>13)</sup>

04 wara anggala dahabuBi Vjiki seme [+ deote ambasai baru hebedeBi dahabure de hendume] dahabuha,, suwe dahaJi coohai ejen amba haWan neneme dahame jio,, tuttu /05 amba hafan jiderakOJi be aKdarakO aWambi seme henduhe manggi,,

(b) 만문노당 8권(萬曆 47년 1619년 3월)

wara anggala, dahabufi ujiki seme deote ambasai #(8:48:7)<sup>14)</sup>  
죽이기보다는 항복을 받아서 살리자” 하며 동생들과 대인들을

baru hebdefi dahabure de, hendume, suwe dahaci, coohai  
#(8:49:1)

항하여 상의하여 항복을 받을 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한다면 병사의

ejen amba hafan neneme jio, amba hafan jiderakūci, be  
#(8:49:2)

수장, 대관이 먼저 오라. 대관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akdarakū afambi seme henduhe manggi, ... #(8:49:3)

믿지 않고 공격하겠다” 하며 말했다. 그러자

---

13) 만문원당의 출전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측자당의 경우에 첫 페이지를 보면 왼쪽 상단에 [昃XXX], 중단에 [0149], 하단에 [297]이라는 숫자가 스탬프로 찍혀있다. 이 논문에서는 만문원당(2006)의 페이지를 따라서 제1권 111쪽 제5행이라면 [1:111:05]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황자당의 경우에 두 쪽이 들어 있는데 각각 [좌], [우]로 표기하기로 하며, 1:101좌:03은 만문원당(2006)의 제1권 101쪽의 왼쪽 부분 페이지의 제3행을 의미한다.

14) 한국어 번역은 곧 출판될 『만문노당 역주』(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의 것을 취하였다.

(c) <만주실록> [5:75a:3~5:75b:1]

75a ... amba beile, amin beile, mangūltai beile, *hong taiji* [避諱] beile hebdeme gisurefī, suwe dahaki seci, coohai ejen, amba hafan neneme jio, amba hafan i beye neneme jiderakūci, be afambi seme /75b hendufī unggihe manggi, ...

昃字檔에서 고친 부분을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죽이는 대신에 항복받아서 살리자하고 [항복받았다.] [+ 동생들, 대신들과 상의해서, 항복받을 때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면 병사의 주장, 대관이 먼저 [항복하여] 오라. [크랄개] 대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고 공격하겠다고 말하자.”

즉 동생들과 대인들과 상의했다는 내용을 첨가하였고, dahabuha (‘항복 받았다’) 대신에 dahabure de hendume (‘항복 받을 때 말하기를’)를 넣어 뒤에 오는 조선군에게 말하는 문장과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그리고 잉여적인 dahame, tuttu를 삭제했다. 이 수정 내용은 그대로 만문노당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昃字檔의 hebedeBi는 당시의 표기법대로 hebdefi로 바뀌었다. 제2음절의 모음이 사라진 것은 언어상의 변화인지 단순히 표기상의 변화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만주실록에서는 여진 측의 장수 이름(즉 4대 버일러)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만문노당과 비교해 볼 때 약간 간략해졌다.

(7) (a) 晷字檔 [1:226:01~04]

226 01 ... solhoi juwe /02 amba haWan ceni ingde bihe nikan  
coohabe gemu jaWaBi bVhe,, [bVre] tuttu nikan be jaWaBi  
burede solhoi [alini wasihOn fVheSebume bVre de] /03 coo-  
hai ingde ukaka nikan be solho baiJame jaWaBi alini  
wasihOn fuheSebuhe,, tere nikan [i] iogi haWan be-/04 solho  
jaWaBi bumbi sere de nikan i tere iogi haWan Wasime  
bVJehe,,

(b) 만문노당 8권(萬曆 47년 1619년 3월)

solho i juwe amba hafan ceni ing de bihe #(8:50:3)  
조선의 두 대관이 그들의 영(營)에 있던  
nikan cooha be gemu jafafi, alin i wasihūn fuhešebume  
#(8:50:4)  
명 병사를 모두 잡아서 산 아래로 굴려 보내서  
bure de, nikan i iogi hafan fasime bucehe, ... #(8:50:5)  
주려고 할 때 명의 유격 관리가 목을 매어 죽였다.

(c) <만주실록> [5:76a:2~5]

daiming ni cooha be jafafi alin i wasihūn fuhešebume burede,  
daiming ni iogi kiyoo i ki fasime bucehe,

晷字檔의 원래의 만문 문장을 번역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두 대신이 그들의 영에 있던 명 병사를 모두 잡아 주었다. 그렇게 명 병사를 잡아서 줄 때에 조선 병사의 영에 도주해 온 명 병사를 조선 병사가 찾아내어 잡아서 산 아래로 굴렸다. 그 명 유격 관리를 조선 병사가 잡아서 줄 때에 명의 그 유격 관리가 목매어 죽었다.”

이 문장과 위의 만문노당을 비교해 보면 조선 병사들이 항복하는 과정에서, 조선군 영에 도망해온 한인을 색출했다는 내용을 뺐으며 문장에서 중복되는 '조선군이 잡아서 넘기려 할 때 그 유격 관리는' 부분도 지우고 위의 '명나라 병사를 내려 보내 넘길 때'에 합쳐 문장을 이었다. 만주실록에서는 nikan을 daiming (대명)으로 바꾸었으며 유격의 이름 '喬一琦'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 2.2.2. 중복 기사

아래에서는 중복 기사가 있는 세 가지의 예를 들기로 한다.

연대 순으로 볼 때 최초의 중복 기사는 황자당 내에서 나타난다. 즉 만문노당 권4의 다음 기사는 황자당에서 각각 48쪽과 51쪽에 나타난다.

#### (8) 만문노당 4권 7쪽 기사

##### (a) 만문원당 황자당 [1:51좌:01~1:51우:03]

L01 nikan i wanli han ninggun biIade guwangnin i jilang  
 sungbingguwan be jase bitume tuwa seme /02 unggibihe,, (중  
 략) /R02 ... mini ai ambula gurun [+bederebu seJi] bi be-  
 derebure sini amba [+gurumbe] si adarame bargilame mute-  
 bumbi /03 dain oJi [+bi] emhun joborakO kai,, sini cooha  
 [+be] geren seme (이하 생략)

##### (b) 만문원당 황자당 [1:48좌:01~09]

L01 nikan i wanli [空格] han ninggun biIade guwangnin i ji-  
 lang □□ sungbingguwan be jase bitume tuwa seme unggibe,  
 tere sungbingguwan amasi /02 bedereBi (중략) /08 ...  
 mini ai ambula gŪrun bi bederebure,, sini amba gŪrun be si  
 /09 adarame bargilame mutebumbi,, dain oJi bi emhun  
 joborakO kai,, sini coohabe geren seme ...

(c) 만문노당 4권(萬曆 43년 1615년 6월)

○ nikan i wan lii han, ninggun biyade, guwangning ni jang  
#(4:7:2)

명의 만력제가 6월에 광녕(廣寧)의  
dzung bing guwan be jase bitume tuwa seme unggihe  
#(4:7:3)

장(張) 총병관(總兵官)을 경계를 둘러보라고 보냈었다.  
bihe, ... #(4:7:4) (중략)

← mini ai ambula gurun, bi #(4:9:5)

나의 나라가 어찌 큰 나라인가. 내가

← bederebure, sini amba gurun be si adarame bargiyame  
mutebumbi, #(4:9:6)

물러나게 하겠다. 그대의 큰 나라를 그대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 dain oci, bi emhun joborakū kai, sini cooha be #(4:9:7)

전쟁이 나면 나 혼자 고생하지 않는다. 그대의 군사가

← geren seme, ... #(4:10:1)

많다 하며,

이상에서 나타난 수정의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황자당 51에서 황자당 48로

unggibihe를 unggihe bihe로 고쳤다. unggibihe는 만주어에 없는 형태  
구성이다. 황자당 51쪽에서 gurumbe, bi, be를 삽입하였는데 이 내용이  
황자당 48쪽에 반영이 되어 있다(단 gurumbe는 gŪrun be로 됨). 이로 보  
아서 황자당 51쪽에 있는 것이 제1차 기록이고, 황자당 48쪽의 것이 그  
것의 수정을 반영한 제2차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단 황자당 51에서 삽입  
한 [+bederebu seJi](물러나게 하라고 한다면)은 의미상 가능한 내용인데  
황자당 48에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만문노당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나] 황자당 48에서 만문노당으로

지명 *guwangnin i* (廣寧의)를 *guwangning ni*로 바꾸었으며, *sungbing-guwan* (摠兵官)을 *dzung bing guwan*으로 고쳤다. 누르하치의 말에 대해서는 대두를 하였다.

(9) 만문노당 7권 26쪽 기사

(a) 荒字檔 [1:98좌:02~06]

02 golmin amba moi gese sabuha,,, juwan bilai juwan nemude gerendere jakade tere s [이하 종이 찢어짐] /03 dekdere ergi de usiha de siren tuJike,, tere naJi tuJike,, siLanggiLa [이하 종이 찢어짐] /04 duiJi inenggi juwan bilai juwan duin i cimariJi jai sabuh [이하 종이 찢어짐] /05 siran tuJike wasiha dobori dari nadan wasiha baru guriBi [이하 종이 찢어짐] /06 dubebe amasi dulembi,,

(b) 昃字檔 [1:200:03~06]

03 golmin amba moJi gese [+den,, muwa hetu emu da] sabuha,,, Ojuwan bilai juwan nemude gerendere jakade tere siLanggilan siren i silun /04 dekdere ergide usiha de siren tŪJike,,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씌 tere naJi tŪJike,, siLanggilan siren,, wasihade [usiha de] siren tŪJike,, duiJi inenggi] /05 ~~juwan bilai~~ juwan duin i cimariJi jai sabuhakO nakaha,, tere ~~juwan bilai~~ juwan nemude [+siren] tŪJike,, wasiha [+usihai] dobori dari nadan /06 wasiha [+ usihai] baru guriBi nadan wasihai [usihai] ŪnJehen i dubei emu wasihai [usihai] amargi dubebe amasi dulembi [+dŪleke],,,

(c) 만문노당 7권 26쪽 (天命 3년(1618) 10월)

... golmin amba moo ci #(7:26:4)

길이는 큰 나무보다

den, muwa hetu emu da sabuha. #(7:26:5)

높고 가로 폭은 한 발 되어 보였다.

○ juwan biyai juwan emu de gerendere jakade, tere #(7:26:7)

10월 11일에 밝아올 무렵에 그

šanggiyan siren i šun dekdere ergide, usiha de siren #(7:27:1)

흰 광선의 동쪽 방향에서, 별에서 광선이

tucike, tere na ci tucike šanggiyan siren, usiha de #(7:27:2)

나왔다. 그 땅에서 나온 흰 광선은 별에서

siren tucike, duici inenggi, juwan duin i cimari ci #(7:27:3)

광선이 나온 지 넷째 날인 14일 아침부터

jai sabuhakū nakaha, juwan emu de, siren tucike #(7:27:4)

다시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11일에 광선이 나온

usiha, dobori dari nadan usiha i baru gurifi, nadan #(7:27:5)

별이 밤마다 북두칠성을 향하여 이동해서 북두칠성의

usiha i uncehen i dubei emu usiha i amargi dube be #(7:27:6)

꼬리 끝의 한 별의 북쪽 끝을

amasi duleke, ... #(7:27:7)

북쪽으로 지나갔다.

(d) 만주실록 [5:15b:1~5:16a:8]

15b ... golmin gusin da, muwa juwe da bihe,, juwan biyai ju-

wan emu de sunjaci ging ni dube de, tere šanggiyan siren i

šun dekdere ergi usiha ci onco emu da šanggiyan siren tucifi

dube ergi daiming gurun i baru bihe, tere na ci tucike /16a

šanggiyan siren, usiha de siren tucuke, duici inenggi juwan

duin i cimari ci jai sabuhakū, juwan emuci siren tucike usiha

dobori dari nadan usihai baru gurime geneme orin uyun i in-

enggi sabufi nadan usihai uncehen i dubei emu usihai amargi

be duleke, tereci jai sabuhakū.

이상에서 나타난 수정의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ㄱ] 荒字檔

황자당의 내용이 초고에 해당하는데 수정된 곳은 보이지 않는다. 이 페이지의 하단 3분의 1 정도가 비스듬히 찢어져 있다. ‘별’에 해당하는 단어인 *usiha*와 *wasiha*가 공존하는데 아마도 이 두 형태는 지역에 따른 방언형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juwan emude* (‘11일에’)에 해당하는 단어가 *juwan nemude*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emu*(‘하나’)가 -n으로 끝난 단어 뒤에서 [n]이 삽입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만문원당에 흔히 나타나는 표기이다(早田 2012 참고).

#### [ㄴ] 昃字檔의 수정

황자당에 *golmin amba moi gese sabuha* (‘길이가 큰 나무처럼 보였다’)라고 썼는데, 측자당의 *moJi*는 *moi*에 획을 더해 *moJi*로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gese* (‘처럼’)를 지우고 *golmin amba moJi den, muwa hetu emu da sabuha* (‘길이는 큰 나무보다 높고, 가로 폭은 한 발 되어 보였다.’)로 수정하였다. 제4행의 하단부에는 종이를 붙여서 다시 썼는데 그 내용은 荒字檔의 것과 같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荒字檔의 아랫부분이 찢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昃字檔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음을 볼 때 적어도 중초할 무렵에는 황자당의 이 부분이 찢어져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별’에 해당하는 *wasiha*를 *usiha*로 고쳐 놓은 것이 눈에 띄는데 아마도 이 두 형태는 방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초고에 해당하는 荒字檔에서도 두 어휘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昃字檔에서는 *usiha*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昃字檔에서 *juwan bilai* (‘10월의’), *tere juwan bilai* (‘그 10월의’)는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dulembi* (‘지나간다’)를 시제에 맞게 *dŪleke* (‘지나갔다’)로 고쳤다.

[ㄷ] 만문노당 7권 26행 이하

측자당의 무권점자를 유권점자로 고치며 거의 그대로 중초하였다. 다만 mo (‘나무’)는 moo로, juwan nemude (‘11일에’)는 juwan emude로 수정하였다.

[ㄹ] 만주실록에서의 수정

만문노당 등에 gerendere jakade (‘밝아올 무렵에’)를 sunjaci ging ni dube de (‘오경 끝에’)로 하여 시간 표현이 더 구체화되었으며 길이, 너비 등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흰 빛이 나왔다’로 표현된 것을 dube ergi daiming gurun i baru bihe (‘끝 방향이 명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여 흰 빛이 어떤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0) 만문노당 5권 35행 이하의 기사

(a) 荒字檔 [1:75좌:05~06]

05 juwan ninggun de enggederi taiji gOwade bumbi /06  
seme genehe da sargan be bVhe akO jihe,,,

<삽입>

06-1 [han i jui hong taiji de buhe ilaka baturu gebungge amban

06-2 𐮎𐮎𐮎 hOsun tuJirakO bime babi mimbe(minde 쓰려  
다가 꼬리 지우고 수정한 듯) ujirakO 𐮎𐮎 [mimbe] 𐮎𐮎  
𐮎 ujije

06-3 ⇐ han de [amasi] genembi seme habSara jakade,, han  
beise ambasai baru hebede[me] daJi mini emgi bihe gojime ...]

(b) 昃字檔 [1:155:06~1:156:02]

06 ● juwan ninggun de enggederi taiji gOwade bVmbi /07  
seme genehe da sargan be bVhe akO jihe,,, [空格] han i jui  
hong taiji de bVhe [+salibuha] ilaka baturu gebungge amban  
/156 01 hOsun tVJirakO bime babi mimbe VjirakO,, Vjihe  
han de amasi genembi seme habSara jakade,, /02 ⇐ han be-  
ise ambasai baru hebede me daJi mini emgi bihe gojime,,

(c) 만문노당

juwan ninggun de, enggeder taiji gūwa de #(5:35:2)

16일에 Enggeder Taiji가 다른 사람에게

bumbi seme genehe, da sargan be buhekū jihe. #(5:35:3)

주겠다 하며 갔다가 본처를 주지 않고 왔다.

↳ han i jui duici beile de salibuha ilaka baturu gebungge amban, #(5:35:5)

Han의 아들 Duici Beile에게 책임을 맡겼던 Ilaka Baturu라는 대인이

hūsun tucirakū bime baibi mimbe ujirakū, ujihe #(5:35:6)

힘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나를 돌보지 않는다. 돌봐준

↳han de amasi genembi seme habšara jakade, #(5:35:7)

Han에게 되돌아가겠다” 하며 호소하기 때문에

↳han, beise ambasai baru hebdeme, daci mini emgi bihe gojime, #(5:36:1)

Han이 Beile들과 대인들을 향하여 상의하되 “본래 나와 함께 있었을 뿐 (이하 생략)

이 예는 황자당과 측자당이 중복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예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하에서 수정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ㄱ] 전체적으로 보아서 두 당안은 필체로 보아서 동일한 필사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황자당(1쪽 당 6행)이 원래의 당안이며 그것을 행에 맞추어(즉 행간 삽입 글자 등을 모두 행에 맞추어) 다시 쓴 것이 측자당(1쪽 당 7행)이다.

[ㄴ] 황자당에서 han i jui 이하는 이미 써 있던 여섯 행에는 없던 것으로 그 행간에 써 넣은 것이다. 즉 이미 황자당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특

히 삽입하는 중에도 쓰고 지운 부분(□□□□□로 표시함)이 있어서 쓰는 도중에 생각을 하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amasi]와 [me]도 추가하였다.

[ㄷ] 측자당에서는 황자당의 삽입 내용을 포함하여 그대로 베꼈다. 그러면서도 일단 황자당에 있는 대로 ‘bŪhe (준)’라고 베껴 썼지만 그것을 지우고 의미상으로 더 적합한 ‘salibuha (책임을 맡겼던)’로 바꾸었다. ‘han (황제)’이 세 번 나오는데 둘은 공격(空格) 또는 대두로 표기하였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표기하였다.

[ㄹ] 만문노당에서는 측자당의 내용을 베꼈으나 다음의 몇 가지가 고쳐져 있다.

만문원당의 두 당안 모두 bŪhe akO로 되어 있던 것을 buhekū로 고쳤는데 이는 건륭제 때의 정서법에 맞게 쓴 것이다. baibi는 만문원당의 ba-bi를 고친 것으로 건륭제 당시의 정서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uici beile는 원래의 hong taiji (황, 측)를 대신하여 쓴 말로서 일종의 기휘(忌諱)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han에 대하여 대두 표기를 하였다.

### 3. 列字檔과 冬字檔의 특이성

위에서 보았듯이 列字檔과 冬字檔에는 1623년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두 당에는 겹치는 기사가 상당수 있다. 그리고 列字檔은 명나라 문서용지의 이면 또는 앞면에 쓴 것이고 冬字檔은 고려지에 쓴 것이다. 또한 冬字檔은 1623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권점 만주자에 가까워서 이전부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sup>15)</sup>. 이하에서는 列字檔과 冬字檔의 중복 기사에 관하여 기술후 협주 침주 등의 주석과 곳곳에 적혀 있

는 작업 지시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만문원당의 성격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1. 중복 기사와 협주, 첨주

협주가 든 예를 보인다.

(11) (a) 列字檔 [3:167:09~11]

09 ... darhan baturu befe jiBi genehe manggi gisur...[종이  
파손] /10 gisun be efuleme taijisai bele Iaburebe nakaha,,  
[ (夾註) darhan baturu genggilen han i amh(a) [종이 파손]  
gebu minggan,, jargOJi beile /11 sŪre han i amha gebu  
manggOs,,<sup>16)</sup> ilduJi minggan i ㊦ amba haha jŪi gebu tong-  
gor ere gemu korJin i beise,,]

(b) 冬字檔 [3:388:02~04]

02 darhan baturu beye jiB<sup>o</sup>i genehe manggi gisurehe gisun  
be /03 efuleme taijisai beye yaburebe nakaha,, [○ darhan  
baturu genggilen han i amha,, gebu minggan,, jargOJi beile  
/04 sŪre han i amha gebu manggOs,, ilduJi minggan i amba  
haha jŪi gebu tonggor ere gemu korJin i beise,,]

---

15) 성백인 (1981:43, 각주) 참고.

16) Manggūs가 자신의 딸을 Hong Tajji에게 보내온 사건(1613년 6월)은 만문노당 권3 40쪽에 나온다.

(c) 만문노당 (1623년)

← ... darhan baturu #(43:14:4)

Darhan Baturu가

← beye jifi genehe manggi, gisurehe gisun be efuleme  
#(43:14:5)

몹소 왔다 간 후에는, 했던 말을 어기고

← taijisai beye yabure be nakaha. (darhan baturu, genggiyen han i amha, gebu minggan.) #(43:14:6)

Taiji들이 스스로 왕래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Darhan Baturu는 Genggiyen Han의 장인으로, 이름은 Minggan이다.) (jargūci beile, [空格] sure han i amha, gebu manggūs. ilduci, minggan i amba haha jui, gebu tonggor. ere gemu korcin i beise.) #(43:14:7)

(Jargūci Beile는 Sure Han의 장인으로, 이름은 Manggūs이다. Ilduci는 Minggan의 장자로, 이름은 Tonggor이다. 이들은 모두 Korcin의 Beile들이다.)

[ㄱ] 列字檔

우선 列字檔에 있는 협주(夾註)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사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여 주석을 붙였는데 중국 책에서처럼<sup>17)</sup> 소자 쌍행(小字雙行)으로 주석을 베풀었다. 게다가 소자 쌍행의 끝 부분을 맞추기 위하여 minggan i까지 쓴 후 행 바꿈을 하여 끝나는 부분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 또한 중국 책과 같은 방법이다. 이로서 추측컨대 이 기사의 작성자(또는 필사자)는 중국 문헌에 익숙한 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석에서 sŪre han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sure han은 Hong Taiji 즉 청 태종의 존호이다. 그렇다면 이 주석은 1627년 이후에 붙인 것이 분명해진다.<sup>18)</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17) 물론 조선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만문원당의 기록이 제 때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ㄴ] 列字檔에서 冬字檔으로

列字檔에서 특별히 수정한 것이 없으므로 冬字檔에 그대로 중초되어 있다. 협주도 꼭 같은 모양이지만 시각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중초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만주자의 표기에 권점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fi를 B<sup>o</sup>i로 쓴 것은 특이하다.<sup>20)</sup> 물론 전반적으로는 완전한 유권점자 표기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ㄷ] 만문노당

열자당과 동자당의 내용이 만문노당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협주는 만문원당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륭 연간에 만들어진 만문노당에는 이 협주 부분에 대한 첨주(添注)도 들어 있는데 sure han (즉 태종의 존호)에 관한 것이다. 첨주에도 대두가 적용되어 있다.

添注: ginguleme kimeci, ere emu meyen suhe hergen i dorgide, < sure han seme arahabi, ere < abkai fulingga forgon i ejehe dangse, te < sure han seme arahangge, ainci < taidzung hūwangdi forgon de niyeceme ejehengge dere.

18) 이러한 사실은 廣祿·李學智(1965)에도 지적되어 있다.  
19) 만문노당 태조조 권 60 제9쪽에 sure han이 한 번 더 나온다. 여기에는 본문에 나오는데, 편년체 형식으로 된 만문노당에서는 예외적인 것이다. 실제로 만문원당 寒字檔[4:184:03]에 본문에 들어 있지만 그 두 페이지 앞에 있는 寒字檔[4:182:03]에는 행간 협주로 들어 있다. 그리고 만문노당에는 첨주로 태종 황제 때 보충된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  
20) B<sup>o</sup>i란 b자의 오른쪽에 권(圈) 즉 동그라미를 붙여 놓은 것이다. 이 글자는 성백인(1981)에 의하면 1625년 당안, 1630년 당안에도 나타난다.

[신중하게 살펴보니, 이 한 단락의 주해 안에, Sure Han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것은 천명(天命) 대에 기록한 당안이다. 지금 Sure Han이라고 쓴 것은 아마도 태종(太宗) 황제 시기에 보충하여 기록한 것일 것이다.]

즉 만문노당의 편집자가 만문원당의 sŪre han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 당안은 천명 시기 즉 1623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태종의 존호인 sure han을 쓰고 있으므로 태종(1626년 이후) 때에 보충한 기록으로 본 것이다.

### 3.2. 작업 지시

列字檔에는 큰 글씨로 된 중초 작업에 대한 지시문이 가끔 보인다. 그 중에 흔한 것이 erebe ara (이것을 쓰라)와 erebe ume (이것을 쓰지 마라)이다. 이것은 冬字檔의 해당하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단락별로 수정된 문서에 포함할 것인지 뺄 것인지를 결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a) 列字檔[3:269:05~07], [3:270:07~08], [3:274:03]

[erebe ara]

269 05 ○ juwan ilan de korJin i manggO maWai orin ha-  
ha,, Ūheri susai jakOn /06 anggala,, emu morin,, dehi sunja  
ihan,, orin honin gajime ukame /07 jihe,,

[erebe Ūme]

○ Ūnege baksi be uksin akO ajige juide morin  
gaiha,, aha bisire niIalmade dere banime sargan bŪhe,, ...  
(이하 생략)

270 07 ○ juwan ilan de nadan jurgan i uile be nakabuBi,,  
dasame sunja jurgan /08 obuha,,

(이하 생략)

[tofohon de erebe ara]

274 03 ○ ineku tere inenggi,, [空格] han de darhan hilai uwesimbuhe bithe,,

(b) 冬字檔 [3:416:07~3:417:02]

07 ○ juwan ilan de korJin i manggO mafai orin haha[+juwan boigon],,/08 susai jakOn anggala,, emu morin,, dehi sunja ihan,, /417 01 orin sunja honin gajime ukame jihe,, /02 ○ tofohon de,, [空格] han de darhan hiyai Ūwesimbuhe bithe,, ...

(c) 만문노당 1623년 3월

○ juwan ilan de, korcin i manggūs mafa i orin haha, #(47:14:5)

13일에 Korcin의 Manggūs Mafa의 장정 20명과 uheri susai jakūn anggala, emu morin, dehi sunja #(47:14:6) 총 58명의 인구가 말 한 마리, 소 45마리, ihan, orin honin gajime ukame jihe. #(47:14:7) 양 20마리를 이끌고 도망해 왔다.

○ unege baksi be uksin akū ajige jui de #(47:15:2)

“Unege Baksi는 갑옷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morin gaiha, aha bisire niyalma de dere banime #(47:15:3) 말을 빼앗고, 노비가 있는 사람에게 체면을 보아 sargan buhe, ... #(47:15:4)

아내를 주었다. .... (이하 생략)

○ juwan ilan de, nadan jurgan i weile be nakabufi, #(47:17:2)

13일에 일곱 부서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dasame sunja jurgan obuha. #(47:17:3)

정비하여 다섯 부서가 되게 하였다.

(중략)

○ tofohon de, #(47:25:4)

15일에

↳ han de darhan hiya i wesimbuhe bithe, #(47:25:5)

Han에게 Darhan Hiya가 올린 글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列字檔에 [ere ara] (‘이것을 쓰라’)라고 쓰인 단락은 冬字檔에 나타나며 [ere Ūme (arara)] (‘이것을 쓰지 말라’)<sup>21)</sup> 라고 쓰인 단락은 冬字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즉 위에서 [erebe ara] 표시가 되어 있는 ○ juwan ilan de korJin 단락은 冬字檔에 있으며 [erebe Ūme]가 적힌 ○ Ūnege baksi be 단락은 冬字檔에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 juwan ilan de nadan 단락처럼 특정한 표시가 없는 단락은 冬字檔에 나타난다. 그리고 [tofohon de erebe ara] (‘15일에 이것을 쓰라’)라고 한 것은 冬字檔에서 지시대로 15일조 기사에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列字檔이 먼저 작성된 것이고 冬字檔이 그것을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중복 기사에서 본 것과는 달리 만문노당의 기사가 수정한 당안인 冬字檔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당안인 列字檔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列字檔에서 쓰지 말라고 했던 ○ unege baksi be 단락이 冬字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문노당에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冬字檔에서 orin haha를 교체한 juwan boigon이 만문노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orin honin (양 20마리)을 orin sunja honin (양 25마리)로 바꾼 것도 만문노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때 冬字檔은 列字檔을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1) 만문원당의 뒷 부분에는 [ere be ara] 대신에 [ara]로만, [erebe ume arara] 대신에 [ume]로만 쓰기도 한다.

만문노당은 列字檔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중복 기사의 경우] 만문원당 - 변개 → 만문원당  
↳ 만문노당

위에서 본 [ere ara], [ere ume (arara)]는 일찍이 廣祿·李學智(1965)에서 아마도 太祖實錄을 편집하기 위한 작업 지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작업 지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3) [ere be ara ede bVhenge be erei sirame ara] (이것을 써라. 그에게 준 것을 이어서 써라)
- [ere be erei jihe inenggi bade ara] (이것을 그가 온 날짜 위치에 써라)
- [ere be arambi saihan gingguleme dacila] (이것을 조사해서 자세히 써라)
- [ere be saihan acabume ara] (이것을 잘 맞추어 써라)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무권점자인 만문원당과 유권점자인 만문노당의 같은 내용을 가진 부분을 대조하여 그 변개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복 기사를 위주로 다루었는데 중복 기사란 만문노당과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는 기사가 만문원당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두 기록 중에서 하나는 초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수정한 것인데 만문노당은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기사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현재 밝혀진 바로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변경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볼 때 변경의 양상은, 무권점자를 유권점자로 바꾼 것 이외에 내용상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분 삭제
- (2) 새로운 기사의 삽입
- (3) 문장의 명료화
- (4) 의미의 명료화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것은 방대한 자료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자료의 언어학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정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자 료】

- 만주실록 역주회(2014), 『만주실록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 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서울: 소명출판.
- 馮明珠 編(2006), 『滿文原檔』 全10冊, 臺北: 國立故宮博物院(『舊滿洲檔』 (1969)의 수정판).
- 吳元豐 主編(2009), 『內閣藏本滿文老檔』,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 滿文老檔研究會 譯註(1955-1963), 『滿文老檔』, 東京: 東洋文庫.
- 『清實錄』(1986), 北京: 中華書局.

### 【논 저】

- 김두현(2010), 『滿文老檔과 舊滿洲檔 對照表 - 太祖朝』,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滿文原檔과 入關前清史研究, 『명청사연구』 30:261-263.
- 김선민(2012), 舊滿洲檔에서 滿洲實錄까지 -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史叢』 77:139-175.
- 도정업(2015), 『滿文老檔』-『滿洲實錄』 만주문 대조 연구, 『알타이학보』 25:1-35.
- 성백인(1981), 『만주어 음운론 연구』, 서울: 명지대학출판부.
- \_\_\_\_\_ (1978), 만문 무권점 십이자두 연구, 『말』 3:97-134, 성백인(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에 재수록.
- 최동권(2007), 『구만주당 荒字檔』. 서울: 보고서.
- 廣祿·李學智(1965), 清太祖朝 『老滿文原檔』與『滿文老檔』之比較研究, 中國東亞學術研究計畫委員會年報 4. 1-165. 中國東亞學術研究計畫委員會.
- 閻崇年(1998), 論滿文老檔, 『滿學研究』 4:1-84.
- 陳捷先(2005), 『舊滿洲檔』述略, 『滿文原檔』馮明珠編(2006) 第十冊의 부록.
- 松村潤(2001), 『清太祖實錄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 神田信夫(1997), 從滿文老檔到舊滿洲檔, 『滿學研究』 3:256-260.

- 早田輝洋(2014), 『滿文原檔』中の重複滿文の相對年代, 『알타이학보』 24:69-81.  
\_\_\_\_\_ (2012), 滿洲語の n ~ Ø 交替の史的概觀, 『알타이학보』 22:93-110.  
\_\_\_\_\_ (2011), 滿洲語と滿洲文字, 『『滿文原檔』の表記に現れた種々の問題』,  
寺村政男 · 福盛貴弘編(2011), 『言語の研究 II -ユーラシア諸言語  
からの視座-』, 語學教育フォーラム 24:1-91.  
池上二良(1965), Tongki Fuka Akū Hergen i Bitheとそのウランバートル刊本,  
『言語研究』 48:46-52.

원고 접수일: 2017년 7월 7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

From *Manwen Yuandang* to *Manwen Laodang*: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Manchu Historical Records of the  
Early Qing Dynasty

Kim, Juwon\* · Lee, Hyoung Mee\*\*

This paper deals with the revision of Manchu historical records in the beginning of the Qing Dynasty, with focus on the *Manwen Yuandang* (滿文原檔, MY henceforth) which was revised into the *Manwen Laodang* (滿文老檔, ML henceforth). MY is written in Manchu letters without circle and dot, which is similar to Mongolian letters. ML is written in Manchu letters with circle and dot, which is often called the New Manchu Script. However, the revision in letter forms is not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rather the focus is on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vision that took place in terms of content.

ML can be regarded as a revised version of MY, but the process of revision is not simple.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double (corresponding) articles,” which means two articles in MY that correspond to one article in ML. In these cases the original was revised more than once. We paid more attention to these double articles. In general the revision was con-

---

\* Professor,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ucted by the following order;

[In case of single articles]

MY → [revision] → ML

[In case of double articles]

MY → [revision] → MY → [revision] → MY

However, the process of revision may have been even more complicated in some cases. The articles in Liezidang and Dongzidang show peculiarities in many ways. Through some annotations and notes in the double articles from Liezidang and Dongzidang, we can see that it is the articles from Liezidang that are reflected in ML, despite the fact that Dongzidang is the revised version of Liezidang;

[In case of double articles] MY → [revision] → MY

↳ ML

We can also find some clues which show that the articles may not have been written at the time. It is likely that there are more cases which show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s of MY and ML.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reveal linguistic value of those documents.

